

# 온 가족 참석하니 법회 분위기도 좋아

### 대구 관오사, 신행활동 활성화 위해 '이달의 가족' 선정



대구 관오사가 선정한 '9월의 가족'인 우태양(맨왼쪽)씨네. 오른쪽은 관오사 주지 지도 스님.

10월 1일, 대구 관오사 가족법회에 참석한 우태양(33)씨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관오사 가족법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가족'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김중환(62) 할머니 최태옥(58) 아들 김중수(34) 며느리 우태양(33)씨와 손자 민석(4)군이 한집에 사는 우태양씨 가족.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열리는 가족법회에 꾸준히 참석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며 모범적인 불자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우태양씨 가족은 이날 300여 불자들의 축하 속에 관오사 주지 지도 스님으로부터

7월부터 시작, 인기 상승  
신행정도 등 꼼꼼히 따져 선정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서 한 권을 상으로 받았다.

"일요일 온 가족이 법회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욱 화목한 가족이 됐다"는 우태양씨는 "혼자 법회에 참석하다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법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전 시어른들이 법회 날을 더 기다리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최태옥씨는 "일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삶에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

사했, 온 가족이 두루 참석하는 법회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관오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세대간의 골이 깊어지고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족간의 정신세계 공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난 7월부터 가족법회를 시작했다. 한 달에 단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개로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가족법회는 박완일, 목정배 교수, 묘허 스님 등 유명초빙법사의 법문이 이어지면서 평균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여전히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달의 가족'을 선정하는 것.

'이달의 가족'은 총무 무일 스님과 종무실장, 사무장으로 구성된 총무팀과 가족법회 준비팀에 의해 선정되는데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관오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일요가족법회에 정성으로 동참하는가, 신행생활에 모범이 되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가를 꼼꼼히 살펴 선정한다.

첫 번째 영예를 안은 가족은 장욱이(69)씨 가족. 8월에는 김혜옥(48)씨 가족이 선정됐다. 그러나 관오사 측은 "가족법회에 가족이 참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를 내세워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신행의 현주소"라며 상을 주지 않기로 가족법회가 활성화 되길 바랐다.

물론 관오사는 '그 날'을 위해 가족이 자연스럽게 법회에 동참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신행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관오사는 장차 부모모임이나 이달의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신행생활을 공유하는 가족별 프로그램을 시행해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찬불가 독창 CD 음반 제작 송림사합창단 백영숙 회장



20년 가까이 대구지역에서 불교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찬불가 독창 CD 음반을 만들었다. 전문 성악인도 만들기 어렵다는 찬불가 독창

음반을 과감히 제작한 주인공은 대구 송림사 법회선열합창단회장 백영숙(53·사진)씨다.

백씨는 "20년 가까이 불교합창단원으로 활동한 기념으로 가슴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찬불가를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반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씨가 제작한 음반 백영숙 애창찬불가집 '사랑담 화택세계'에는 백씨가 가장 좋아하는 찬불가 '사랑담'과 '화택세계' 등 찬불가 15곡이 수록돼 있다.

백씨는 이번엔 제작한 찬불가 음반 1000장을 모두 불자들에게 배포해 찬불가 보급에 힘 쓸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이번 소조불 주제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경주 석장사지 유물이 대거 전시된다. 사진은 석장사지 탐상문헌.

## 흙으로 빛은 '깨달음'

### 동국대경주캠퍼스 건축100주년 기념 '래여애반다라'展 국내 최초...삼국~조선 아우르는 소조불 100여점 전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이점원)이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흙으로 빛은 소조불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래여애반다라(래如哀反多羅)"전이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소조불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소조불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전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금까지 한국불교조각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소조불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 되지 않았던 경주 석장사지 유물이 대거 전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1986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발굴조사결과 발견된 다량의 탐상문헌(탐과 불상이 새겨진 전돌)과 소조상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조각가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들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양지 스님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보살상과 신장상 등 서역풍의 조각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 탐상문헌에 새겨진 불상들은 비



석장사지 소조상편.

록 소품이지만 국내에 유례가 없는 고행상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도상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된다.

따라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이번 전시회의 테마를 양지 스님이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 도성의 남녀들이 진흙을 나르며 불렀던 향기의 구절을 따 '래여애반다라'고 불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소조불 관련 도록을 만들어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배지선 기자

## 본말사 성보 모아 과학적 보존

### 불국사 성보박물관 기공식... 지하 1층 지상 1층 최첨단 시설

경주 불국사는 9월 26일 경내에서 성보박물관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비22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이 투입



9월 26일 열린 불국사 성보박물관 기공식. 작은 사진은 성보박물관 조감도.

되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은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려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459평 규모의 단층 목조 한식기로 건립되며, 지하층은 수장고와 기계실을 갖추고, 지상 1층은 전시관과 휴게실 등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ㄷ'자 건물로 지어 관람을 편하게 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불국사는 2009년 9월 박물관이 완공되면 본 말사에 흠여져 있는 문화재를 모아 과학적으로 보존 전시할 계획이다.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제에 이어 열린 기공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과 백상승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50여명이 참석했다.

글: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 음정 박사 들려도 '즐거워' 법왕사 경로잔치 30회 맞아

"나이는 77, 칠뎡입니다. 범어동에서 왔다는 언니야, 올라라 열풍아 이어집니다." 사회자의 재담에 청춘으로 돌아간 할아버지 할머니의 열창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서

서 춤사위가 펼쳐졌다. 멋들어진 구수한 옛 가락을 뽐내며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음정 박사 하나 맛지 않은 채 불려대는 야릇한 곡까지 이어지면서 경로잔치가 무르익었다.

대구시 파동 법왕사 30회째 경로잔치를 9월 23일 열여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 알기쉬운 佛敎 儀式

##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분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동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승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제법보살장엄의식	제8장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제9장 이운편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알기쉬운 齋禮 儀範

##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가장 가장 귀한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합하신 의식집이 따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에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버리달

編·著者 法眞 辛承都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매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處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제 괘불이운 권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문수상단 문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심왕상정례(修禱王生七齋)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禮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